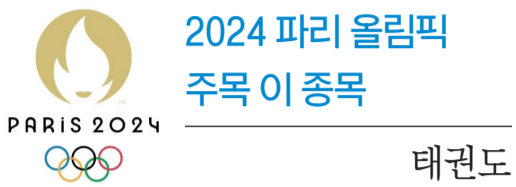


‘도쿄 노골드’는 잊어라... 종주국 자존심 되찾겠다



한국 태권도는 2021년에 열린 2020 도쿄 올림픽에서 세계 태권도의 전력 평준화를 뼈저리게 체감했다.

태권도 종주국 한국은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를 따냈지만, 금메달 획득엔 실패했다.

한국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지 못한 건 태권도가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이후 처음이었다.

노골드 충격 속에 절치부심한 태권도 대표팀은 2024 파리 올림픽에서 종주국의 자존심을 회복하겠다는 각오다.

대표팀은 이번 대회에서 최소 1개 이상의 금메달을 거머쥐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사실 한국 태권도의 전망은 썩 밝지 않다. 한국은 파리 올림픽에 단 4명의 선수를 파견한다.

남자 58kg급 박태준(경희대)과 남자 80kg급 서건우(한국체대), 여자 67kg급 이다빈(서울시청)이 세계태권도연맹(WT) 올림픽 랭킹으로 파리행 티켓을 확보했고, 여자 57kg급 김유진(울산광역시체육회)은 파리 올림픽 아시아 선발전을 거치는 유예국절 끝에 막차를 탔다.

한국 태권도가 올림픽에 4명 이하의 선수를 내보내는 건 2012 런던 올림픽 이후 처음이다.

올림픽 태권도 종목은 메달이 특정 국가로 쏠

박태준·서건우·이다빈·김유진
역대 최소 인원 “금 1개 이상”
8월 7일부터 10일까지 결전

는 것을 막고자 체급별 출전 선수 제한을 뒀고 이에 한국은 리우 대회에 5명, 2020 도쿄 대회에 6명을 내보냈다. 그러나 파리 올림픽에선 국가별 출전 선수 수에 대한 제한이 풀린 이후 역대 최소인 4명의 선수가 나선다.

물론 이번에 출전하는 네 선수 모두 메달 획득이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금메달을 장담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박태준은 한국 태권도의 간판 장준(한국가스공사)을 국내 선발전에서 꺾은 차세대 에이스다.

그러나 올림픽 출전 경험이 없는 데다 해당 체급엔 도쿄 올림픽 은메달리스트이자 세계랭킹 1위인 모하메드 칼릴 젠두비(튀니지) 등 강자들이 차고 넘친다.

또한 한국 태권도는 올림픽 남자 58kg급과 유독 인연이 없었다.

한국은 2012 런던 올림픽(이대훈-은메달), 2016 리우 올림픽(김태훈-동메달), 2020 도쿄 올림픽(장준-동메달) 등에서 해당 체급 입상에 성공했으나, 한 번도 금메달을 따지는 못했다.

서건우도 메달 후보다. 그는 지난해 12월에 열린 WT 월드컵 광저우 파이널에서 올림픽 랭킹 1위 시모네 알레시오(이탈리아), 2020 도쿄 올림픽 은메달리스트 살리흐 엘사라바티(요르단)와 동메달리스트 세이프 에이사(이집트)를 차례로 꺾으며 정



지난 25일 오전 충북 진천 대한체육회 진천선수촌 태권도장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태권도 미디어데이에서 이번 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왼쪽부터) 박태준, 서건우, 김유진, 이다빈. /연합뉴스

상에 섰다.

다만 서건우 역시 올림픽 무대는 처음이다.

남자 80kg급은 전통적으로 한국의 취약 체급으로 꼽히는데, 한국 태권도 대표팀이 이 체급 올림픽 출전권을 딴 건 이번이 처음이다.

도쿄 올림픽 은메달리스트인 이다빈은 3년 전 아쉽게 놓쳤던 금메달을 파리에서 되찾겠다는 각오다.

도쿄 올림픽 이후 잦은 부상에 시달렸던 이다빈

은 컨디션 조절에 초점을 맞추고 올림픽을 준비하고 있다.

김유진은 다크호스로 꼽힌다. 지난 5월엔 아시아 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하며 기세를 끌어올렸다.

한국 태권도는 역대 최소 인원으로 올림픽 대표팀을 꾸린 만큼, 단체 훈련보다는 선수별 맞춤 훈련을 통해 이번 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태권도는 변수가 많은 종목이고, 선수들의 당일 컨디션에 따라 승패가 갈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기력 유지 훈련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파리 올림픽 태권도는 현지 시간으로 8월 7일부터 10일까지 프랑스 파리의 역사적인 건축물이자 박물관인 그랑팔레에서 열린다.

태권도 종목 첫날인 8월 7일엔 박태준이 남자 58kg급에서 금메달을 노리고 8일엔 여자 57kg급 김유진, 9일엔 남자 80kg급 서건우가 출격한다.

마지막 날인 10일엔 이다빈이 여자 67kg급에서 우승에 도전한다. /연합뉴스

위대한 선수들, 기록하고 이루었다

미국 육상 애나 홀·영국 자넬 휴즈 등 일기 쓰며 정신력 다져

위대한 기록을 쓴 세계 선수들은 공통점을 갖고 있다. 바로 ‘기록’이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다가오는 세계 스포츠인들의 축제 2024 파리올림픽을 맞이해 일기쓰기를 통해 시각화를 실천하고 있는 스포츠 선수들을 소개했다.

미국의 육상 7중 경기 선수인 애나 홀은 일기에 자신의 발전 상황을 꾸준히 기록하며 정신력을 다졌다

2021년 선발전에서 발을 다쳐 도쿄올림픽에 출전하지 못했던 홀은 ‘정신적 회복’을 새로운 목표로 추가했다.

홀은 이번 년도 초 무릎 수술을 받았다. 올림픽 선발전을 불과 5개월 앞두고 마주한 큰 위기였지만, 그는 미래의 모습을 꿈꾸며 단단한 정신력으로 어려움을 이겨냈다.

홀은 지난달 24일(현지시간) 미국 오리건주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미국 육상 대표 선발전 여자 7중 경기에서 우승하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최근 공개된 홀의 일기장에는 “이제 내 종목이고, 타이틀이고, 자라다. 내가 차지할 것이다”, “여기까지 오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다. 이제 재밌게 놀 시간이다” 등 기쁨과 확언에 찬 문장이 쓰여 있었다.

영국의 단거리달리기 선수 자넬 휴즈는 일기에

자신의 미래를 예측해 기록해놓는다고 밝혔다.

휴즈는 지난해 열린 런던 다이아몬드리그에서 19.73의 기록으로 200m 결승선을 통과했다.

그는 경기 이후 “나는 예측했었다. 오늘 아침 9시 30분경 정확히 그 시간조를 노트에 적었다”고 전했다.

휴즈는 자신의 포부를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세세하게 그려나가는 과정을 통해 원하는 바를 현실에서 이뤄낸다.

휴즈의 거실 벽에는 크고 구체적으로 적어놓은

자신의 인생 목표가 걸려있다. 그는 시각화를 통해 자신의 목표를 이루고 성공으로 가는 로드맵을 실현해 오고 있다.

2021년 열린 도쿄올림픽 당시 여자 높이뛰기 은메달리스트인 호주 니콜라 맥더모트의 손에는 녹색 일기장이 떠나지 않았다.

맥더모트는 경기에서 한번 점프를 할 때마다 자신의 일기장에 기술적인 조언을 기록했다. 일기장 한편에는 가로대를 넘는 자신의 모습을 직접 묘사한 그림도 그려져 있다.

원하는 바를 이룬 자신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그린 맥더모트는 여자 높이뛰기 결선에서 2m02를 뛰어넘으며 세계 2위에 올랐다.

맥더모트는 “어떤 분야에서 정말 잘했고, 어떤 분야에서 노력해야 할지 알 수 있게 하기 위해 수첩을 가져오려고 생각한 것이다”며 “일단 한번 적어두면 종이에 남아 있으니까 머릿속에 넣지 않아도 되고 다른 걸 더 생각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의 기록은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했다. 2005년 당시 9살의 소녀 맥더모트는 자신의 일기에 ‘하이점프 드림’이란 글을 썼다. 글의 마지막에는 ‘올림픽에 출전하는 게, 나의 가장 큰 꿈’이라고 적었다.

올림픽 출전을 꿈꾸던 어린 맥더모트의 꿈과 열정은 16년 만에 도쿄에서의 은메달로 빛을 발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광주 에이스’ 엄지성 이젠 ‘유럽파’

EPL 2부 리그 스완지 시티 이적
‘금호고 손흥민’ 서 리그 대표 우뚝
2021년 프로 데뷔·국가대표 활약
5일 광주시청에서 환송식 개최



광주FC의 프랜차이즈 스타 엄지성(사진)이 스완지 시티로 간다.

엄지성의 영국 프리미어리그 챔피언십(2부리그) 스완지 시티AFC의 이적이 확정됐다.

노동일 광주 대표이사는 지난 3일 스완지시티 대표와 화상 회의를 갖고 엄지성의 이적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를 마무리했다.

광주 유스 출신의 엄지성은 ‘금호고의 손흥민’으로 통했던 특급 선수다.

양발을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그는 금호고 2학년이었던 손흥민을 떠올리게 하는 골을 장식했었다.

엄지성은 2019 전국 고등 축구리그 왕중왕전 4강전에서 12번의 볼터치 끝에 70m가량을 돌파해 득점까지 완성했다.

며칠 뒤 손흥민(토트넘)이 번리전에서 ‘원더골’을 터트렸고, 덩달아 엄지성도 자신의 우상과 함께 화제의 인물이 됐다.

‘남다른 떡잎’으로 많은 기대 속에 2021년 프로 무대에 뛰어든 그는 7경기 만에 데뷔골을 장식했다.

엄지성은 2021시즌 K리그1 7라운드 인천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 전반 추가시간에 오른발로 골대를 가르면서 프로 데뷔골을 기록하는 등 프로 첫해 37경기에 나와 4골 1도움을 올렸다.

의식을 잃고 그라운드로 떨어져,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다행히 큰 부상은 피했지만 부상 후유증을 겪었던 그는 또 상대의 집중 견제로 잇달아 발목 부상을 당하며 28경기에 나와 5골 3도움으로 시즌을 마감했다.

아시아게임 대표팀 탈락 등 개인적으로는 아쉬운 시즌이 됐지만 엄지성은 광주의 팀 최고 성적인 리그 3위와 아시아챔피언스리그 진출에 기여했다.

올 시즌도 마음과 같지는 않았다.

‘황선홍호’에 승선해 올림픽 본선 티켓 사냥을 펼쳤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고 리그에서는 골 불운이 계속됐다.

하지만 엄지성은 중요한 순간 팀의 승리에 역할을 했다.

‘올림픽 탈락 충격’을 딛고 출전한 첫 경기에서 엄지성은 시즌 마수결이 골을 기록했다.

5월 1일 제주와의 K리그1 10라운드 원정경기에서 전반 종료 직전 페널티킥을 얻어낸 엄지성은 직접 키커로 나서 시즌 5번째 경기 만에 첫골을 장식했다. 팀은 3-1 승리를 기록하면서 6연패에서 탈출했다.

그리고 엄지성은 6월 15일 김천상무와의 17라운드 홈경기에서 시즌 2호골을 장식하면서 팀의 2-0 승리를 이끄는 등 올 시즌 15경기에 나와 2골 3도움을 기록했다.

한편 광주는 팀의 프랜차이즈스타이자 에이스로 활약해 온 엄지성이 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광주는 5일 오후 7시 30분부터 광주시청 2층 무대에서 ‘엄지성, 너의 꿈을 응원해’라는 주제로 환송식을 진행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FC “‘돌풍’ 잠재우고 연습”

7일 강원FC와 원정 경기



광주FC가 상승세를 이어 돌풍의 팀 강원FC를 상대로 연습에 도전한다.

광주는 7일 오후 7시 강릉종합운동장에서 강원FC를 상대로 하나은행 K리그1 2024 21라운드 원

정경기를 치른다.

앞선 홈경기에서 광주는 연패를 끊고 분위기를 바꿨다.

주중 수원FC와의 원정 경기에서 최악의 경기력으로 0-1패를 기록하는 등 연패에 빠졌던 광주는 홈에서 치른 제주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 신창무와 가브리엘의 골로 2-1승리를 거뒀다.

광주는 이 승리로 8승 1무 11패(승점 25)를 기록, 8위에서 7위로 한 계단 올라섰다.

순위는 강원이 앞선다. 강원은 올 시즌 10승 4무 6패(승점 34)의 성적으로 4위에 자리하고 있다.

하지만 올 시즌 첫 대결에서는 광주가 승리를 쟁겼다. 광주는 2라운드 홈경기로 진행된 강원전에서 멀티골을 기록한 가브리엘의 활약을 앞세워 4-2승리를 거뒀다. 최근 10경기 전적에서도 광주가 4승 4무 2패로 앞선다.

엄지성의 스완지 시티 이적이 확정되면서 에이스가 팀을 떠나게 됐지만 광주는 앞선 제주전에서 돌풍구를 찾았다.

신창무가 전반 7분 만에 선제골을 장식하면서 시즌 4번째 경기에서 첫 골을 장식했다. 여기에 부상복귀전에 나선 이희균도 든든하다.

이날 후반 19분 신창무를 대신해 그라운드에

투입된 이희균은 활발한 움직임으로 상대를 몰고 다니면서 경기장 분위기를 바꿨다. 이희균의 탈입박쇼에 이어 가브리엘의 골이 나오면서 광주는 기분 좋은 승리를 만들었다.

‘추가시간 악몽’도 지웠다. 후반 추가 시간 상대의 프리킥 상황에서 매서운 슈팅이 나왔지만 골키퍼 김경민이 눈부신 선방으로 팀의 승리를 지켰다.

숨을 고르고 있던 브라질 듀오의 움직임도 매서워지고 있다.

앞선 경기에서 결승골을 기록하는 등 가브리엘은 5골 3도움으로 알토란같은 활약을 이어가고 있고, 수원FC와의 원정경기를 통해 처음 모습을 드러낸 센터백 브루노도 변준수의 부상 공백을 메워주고 있다. 장신 공격수 빅토르도 높이 싸움을 이끌어 주는 등 공격 다양화의 옵션이 되고 있다.

강원도 앞선 인천 원정에서 1-0 승리는 거두면서 흐름이 좋다. 하지만 9득점 1도움의 활약을 한 야고를 떠난 보내면서 전력 공백이 생겼다.

광주가 경계해야 할 상대는 ‘신성’ 양민혁이다.

지난 3월 광주는 경기 시작과 함께 양민혁에게 프로 데뷔골을 헌납했다. 전반 1분 만에 광주골대를 뚫으면서 남다른 신인의 출발을 알렸던 양민혁은 올 시즌 5골 3도움을 기록하고 있다.

말리 강원으로 원정을 떠나는 광주는 10일에는 울산으로 이동해 울산HD와 원정 2연전을 치른다.

4위 강원과 2위 울산 등 선두 싸움을 하는 강팀들과의 험난한 원정이다. 오는 17일에는 코리아컵 경기도 치러야 하는 만큼 이정호 감독의 용병술에 눈길이 쏠린다.

이날 후반 19분 신창무를 대신해 그라운드에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